

## 대순사상(大巡思想)의 성립과 전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Daesoon-Thought

윤 재 근  
(한국, 대진대학교)

---

---

《 Abstract 》

---

---

Daesoon-thought is considered as the one that offers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modern society and advocates the new worldview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Basically, Dong-Hak, which was a root of Korean religions, was strongly against formalistic Confucianism that governed the whole society of Chosun dynasty, and showed its characteristics towards anti-neo confucianism. However, the people, who severely suffered from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 world with deploring their languishment, longed for the emergence of a new leader, since the sprit of Dong-Hak, which was pervaded up to Gab-o-keong-zang, was collapsed before the sword of Japanese forces.

Jeungsan was well aware of people's thoughts, and provided with them hopes of life in a very active manner. So, his thought showed plebeianism and democratic nature in a certain sense with racialism that tried to recover the collapsed pride of Chosun. Particularly, Cheon-ji-gong-sa, one of his religious thoughts,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ose advocated by other religious thinkers, and shows the positive will that overcomes the difficulties of the world in the religious way.

This paper aims at shedding the light on how Daesoon-thought appeared with the background of late Chosun. For this, the trend appearing in religions and thoughts at the time of late Chosun when Daesoon-thought started, will be examined carefully. Also, based on such a background it will be further investigated how Daesoon-thought has been developed and systemized.

---

---

※Key words :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Daesoon-thought, Jeungsan, Jeongsan, Woodang, Cheon-ji-gong-sa, 조선후기, 대순사상, 증산, 정산, 우당, 천지공사

## I. 논의의 관점

본 논문은 ‘대동철학’ 제23집(2003,12)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왜냐하면 대순사상학술원이 2003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고 기관지인 대순사상논총 또한 새로운 편집양식과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의 원고를 투고 게재하는바, 이에 대순사상과 관련한 발생학적 또는 성장과정에 대한 기초논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순사상의 발생과 형성과정을 비교적 평이한 서술 내용과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 바탕하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첫머리에서 기왕의 연구진 및 독자들에게 해량을 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순사상은 한국사상사의 기초 위에서 근대적인 인간에 대한 해석과 세계관을 표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종교사상의 큰 흐름은 수운과 증산 그리고 소태산의 의미체계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모두 조선왕조 사회 전반을 지배해 오던 유교의 형식화를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반성리학적(反性理學的) 성격을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상적 분기점을 마련하고자하는 종교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개혁사상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들은 당대의 종교가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델인 셈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수용과 반응의 과정에서 종교개창자와 당시대인들의 접점을 마련하고 종교사상적 폭발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갑오경장으로까지 확산된 동학의 정신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한국 종교사상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일제의 관권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되면서 일반 민중들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감을 절감하였을 것이며 민초들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열망하였을 것이다.

대순사상의 연원인 증산은 이러한 민중의 심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식의 전환을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서민적이면서도 민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외세에 허물어진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의 종교사상 중 동시대에 형성된 여타의 종교사상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종교적으로 현실의 질곡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혁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순사상이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순사상이 태동하는 시점인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종교·사상적 동향을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등장한 대순사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조선 후기 사회의 흐름

조선사회는 유교적 가치체계를 사회의 보편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유교주의에 입각한 종교적·도덕적 가치는 신분질서·관리임용·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 1. 역사적 조건 읽기

조선후기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으며 유럽 세력이 동양으로 몰려오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였다.

1860년 발생한 영·불 연합군의 북경점령사건은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로 볼 때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사건이었다.

조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차례 이양선이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결국 서학의 전래와 열강들의 강제적인 개항요구의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1910년 한일합병까지는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불합리한 불평등조약들이 맺어졌다.<sup>1)</sup> 이처럼 서구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서양열강들의 침입은 서구문물의 국내 유입을 강제하였으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층민중이 체감하는 문화 충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갑오경장은 결과적으로 봉건적 제약을 많이 시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마침내는 외세의 국내 침투에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외세에 의한 강제적 개항 등의 일련의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체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sup>2)</sup>

한편 조선후기의 사회는 봉건적 사회모순이 전면화되는 시기였다.<sup>3)</sup> 이러한 사

1) 金昌洙, <東學運動과 民族意識의 成長>, 《人文科學研究 I》, 誠信女大 人文科學研究所, 1991, 참조.

2)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6-19쪽 참조.

3) 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서울, 돌베개, 1989,

회모순은 지주와 소작농의 기본계약단위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의 지배구조 시스템 내에서도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돌보지 않고 중앙상납분을 증대시키자 지방의 관청에서는 각종 세금의 부과, 환곡, 고리대 등을 통하여 재정 부족분을 보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봉건권력에 의한 농민수탈은 심화되었고 이것은 만성적인 삼정(三政)문란<sup>4)</sup>의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sup>5)</sup> 이러한 사회 모순의 심화는 조선조 봉건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체계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배권력에서 배제된 일부의 양반층은 현실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학문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실학자들은 봉건제의 위기가 미봉적인 인재등용 방법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의 개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주전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조치가 불가결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반지주들의 토지 겸병(兼併)과 농민의 몰락을 촉진시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생산관계인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의 해체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지주전호제의 해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몰락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경영형 부농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sup>6)</sup> 특히 이들 경영형 부농을 비롯한 일부 부농층들은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권익을 보호할 목적에 따라 신분상승을 피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재정의 궁핍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국가에서는 일종의 매관매직이라 할 수 있는 공명척과 납속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 중엽부터 관료제 유지의

---

15-35쪽.

- 4) 삼정이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換穀)을 이르는 것인데 세도정치하의 탐관오리들은 그들의 사복(私服)을 채우기 위하여 갖가지의 방법으로 농민들에 대하여 수탈행위를 자행했다. 전정(田政)에서는 진결(陳結), 은결(隱結), 백결(白徵), 허결(虛結), 도결(都結), 재박(災薄)의 작간 등으로--정약용, 《목민심서》 권10, 호전(戶典)조 중 전정(田政) 조--, 군정(軍政)에서는 황구(黃口), 첨정(簽丁), 족징(族徵), 동징(洞徵), 강년채(降年債), 마갈채(磨勘債), 백골징포(白骨徵布)--정약용, 《목민심서》 권26, 병전(兵典)조 중 첨정(簽丁)조-- 등의 방법으로, 환곡(還穀)에서는 반작(反作), 가분(加分), 허유(虛留), 입본(立本), 암유(暗留), 반백(半白), 분석(分石), 집세세전(執新稅轉), 사혼(私混), 채록(債勒)--정약용, 《목민심서》 권 13, 호전(戶典)조 중 곡부(穀簿)조--의 방법으로 농민들을 핍박했으니 농민경제는 파탄되고 국가경제는 고갈되어 19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피폐의 도가 극에 달해 있었다.
- 5) 19세기 말 일반대중을 형성하는 층이 빈농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층민중의 생활고는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다.
- 6) 윤재근, 위의 논문 제2장 참조.

바탕을 이루어왔던 과거제도도 그 공정성을 상실하여 매관매직 등이 성행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양반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sup>7)</sup> 이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여 주었던 신분제의 동요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양반 수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sup>8)</sup> 결국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양반의 수적 증가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증가된 양반 수는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또한 집권정치인들의 끝없는 당쟁은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이라는 두 부류로 양분되기 시작했으며, 이들간의 권력투쟁은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으로 격화되었다. 또한 동학교도들에 의해 일어난 교조신원운동은 그 지배이념이 정치문제로 이어져 동학혁명(1894)을 낳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앙정치 뿐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까지도 극도로 문란하였으며, 이는 곧 농민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민란의 형태로 자신들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분출시켰던 것이다.

특히 중앙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가림주구(苟斂誅求)에 견디기 어려웠던 백성들에게 더욱 수탈을 자행했던 계층이 아전과 토호들이었다. 아전은 토관직(土官職), 경아전(京衙前),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되며, 그 지방 토착출생의 세습적 외무직을 담당했던 중인신분이었다. 이들은 중앙정치의 문란을 틈타 위로는 재상이나 통찰사 등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일반생민층의 경제권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으니<sup>9)</sup> 그들의 작간 방법으로 갖가지 권리를 갖고 농민들에게 자행했던 착취는 세도가들의 매관매직행위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기강과 행정의 문란은 곧 민중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로 이어졌으며, 계속된 전염병과 흉수, 가뭄으로 인한 흉년, 기근 등은 농민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민란의 형태로 농민들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분출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자행되던 파국적 혼란은 기층민중들을 자극시켜 그들에 의한 봉기, 민란, 화적, 도적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것이 정치적 혼란과 결부되어 사회적 대환란의 분위기를 심화시켜나갔다. 이러한 혼돈은 현실적 상황과 시대정신의 변혁을 고려하지 못한 까닭이며 이는 곧 기존의 고착화된 체제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즉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적 가치체계의 재편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근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가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7) 鄭奭鍾,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93, 246-251쪽.

8) 양반 계급의 비대화는 그들의 토지를 세습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소작농에 의한 토지 경작이 증가하였고 조정에 납입하는 현물세가 감소되어 기층 민중에 대한 중과세 현상을 야기했다.

9) “縮交宰相 關通察司 上貌官長 下剝生氏”, 정약용, 《목민심서》 권8, 속리(束吏).

## 2. 문화적 배경의 변화 양상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와 혼란은 그 시대의 사상적 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당시 조선의 지도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예론(禮論)으로 치우치면서 경제지학(經世之學)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7-8세기 접어들면서 일부 재야학자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으로서 실학(實學)이 발생하였고<sup>10)</sup> 또 다른 일단의 재야학자 사이에서는 양명학(陽明學)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특히 실학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융성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학과와 경제치용(經世致用)학과로 나뉘어 조선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론을 주장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혁론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못했고, 또한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들의 개혁 주장이 당시의 집권 관료들의 이해(利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학자들의 개혁사상은 개항기의 개화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실학사상과 함께 양반 지식인층에게 유입된 양명학은 임진왜란 이후 수용되어 주로 주기론자인 화담 서경덕이나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문하 가운데서 종실이나 서얼 등 불우한 하층 사대부들에 의하여 수용 또는 용인되었다.<sup>12)</sup> 그러나 이는 정주적(程朱的) 테두리에서 수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에 양명학이 정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도이념의 구실을 하기에는 적당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은 성리학이 국가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학과 더불어 성리학 일변도의 관념적 사변철학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제기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나 도교 그리고 비기, 참서 등이 크게 유행

10) 김용옥의 주장에 의하면 실학은 우리의 상식적 역사인식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근대성의 모델 설정에 대한 종속변인들이며, 실학이 조선사상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실학이라는 의미구조와 조선사상사 자체에 내재하는 근대성 의미구조의 내재적 정합성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 현실태로서의 실학이라는 개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김용옥, 《독기학설》, 서울, 통나무, 2004 참조) 그러나 이미 우리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조선 중기 이래 정약용을 위시한 일단의 진보적 사상가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새로운 학풍과 사상적 흐름이 형성된 바 이를 '실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오류는 아니라고 본다.

11)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동학혁명의 배경, 19세기의 사상적 흐름>, 《동학혁명백주년기념 논총(上)》, 서울, 태광출판사, 1994, 350-353쪽.

12) 尹南漢, 《朝鮮時代陽明學研究》, 서울, 집문당, 1982, 348-349쪽.

13) 韓祐勳, <東學唱道の 時代的 背景>, 《斗溪李丙叢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7, 681쪽.

하였다. 불교나 도교 등과 같은 종교사상은 조선조의 3대 기본 정책 중의 하나인 승유억불정책에 의하여 배척되기도 하고 실제로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교나 도교 등은 유교 사회의 종교적인 공백을 채워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궁중에 이르기까지 사후 명복을 비는 기원이나 요병(療病)·기복 등의 불사(佛事), 초제행사(醮祭行事)가 행해지게 되었다.

불교의 교세<sup>14)</sup>는 사찰의 수로만 따진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민간에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전해져오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역성혁명에 의해 수립된 조선왕조의 유교적 전통 내에서 불법을 연구하고 금욕생활을 하는 등의 사명감을 가지고 승려가 되려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니 오랫동안 일반 민중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던 불교의 전략은 그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장사상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도교는 불로장생의 기원이나 천신(天神), 성진(星辰)에 대한 초제행사 등을 통하여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널리 유포되었다. 또한 도교의 허무사상은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일부 양반층의 은둔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세속을 초월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고명한 인사로서 선인을 자처하며 고고한 생활을 하는 풍조로도 계승되어 왔으며<sup>16)</sup> 도교의 초제행사는 불교와도 결합하여 사찰 내에 이른바 칠성각이 세워져서 일반 민간신앙과 습합되기도 하였다.<sup>17)</sup> 하지만 도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이단음사로 배척되었으며 다만 토속신앙과 융합되어 부녀자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와 아울러 민간에서는 비기(秘記)나 참서(讖書)등이 은밀하게 유포되어 민심을 현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기나 참서 따위는 조선후기 빈발하였던 민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과 함께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어 온 무속은

14) 조선후기 사회에 있어 불교의 교세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볼때 18세기 말의 경우 1,500여 개의 사찰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러시아 대장성 편, 《한국지》, 동경, 일본농상무성, 1905, 354-355頁, 참조)

15) “불교의 승려가 되는 사람은 3년상 중에 태어난 사람, 역노비(驛奴婢)의 자식, 결혼을 못한 사람, 과부,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사원에서 은신처를 찾고 재난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 등과 같이 사회적인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위의 책, 353頁.

16)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앞의 책, 356-357쪽.

17) 철종 때에는 인왕산 칠성암에 신당이 있어 여기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인(士人)이(齋禱)를 하면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여 유생들까지도 종종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韓祐旆, <동학의 성격과 동학교도의 운동>,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지식산업사, 1987, 72쪽.)

오래 전부터 민간에 가장 널리 유포되어 왔던 보편적인 신앙형태로서 다시 도교 등과 융합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국가적인 기양(祈禳)등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18)</sup> 또한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어 온 것으로는 무속이 있다. 이러한 무속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에 가장 널리 유포되어 왔던 보편적인 신앙형태로, 다시 도교 등과 융합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국가적인 기양(祈禳) 등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19)</sup>

그러나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무속신앙은 이단음사로 배격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활인서(活人署) 소속의 무녀를 성외로 축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격의 유포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조에 이르러서는 무녀들이 궁궐에까지 출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속적 신앙체계가 우리민족에 있어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조선사회의 지배 이념을 유교적 사상체계로 제창하여 이념적 명분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속과 전통신앙이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게 되자 순조 때에는 무녀와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하는 영을 내리게까지 되었다.<sup>20)</sup>

한편 17세기 중국에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하여 전래된 이른바 서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기의 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근기지방의 남인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중인, 서민, 부녀자 등이었다. 실학과 양명학이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계층에 의해 연구되고 수용되었다면, 서학의 경우는 일부 양반층과 중인, 부녀자, 서인 등의 보다 폭넓은 계층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는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의 일부 청년들에게는 천주교서가 일종의 보유론적(補儒論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현실적인 유교의 퇴폐가 그들로 하여금 천주교 신앙에 몰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sup>21)</sup> 일반 민중들에게는 천주교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평등주의, 곧 신분제의 부정과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던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내세사상이 그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조선후기 사회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민중의식이다.<sup>22)</sup> 이러한 민중의식은 예술, 문학, 음악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8) 한우근, 앞의 논문, 687쪽.

19) 한우근, 위의 논문, 688쪽.

20) 《순조실록》, 권 14, 순조 11년, 갑인.

21) 한우근, 위의 논문, 690쪽.

22) 편집부편, <실학과 서민문화>, 《한국사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7, 참조.



조선 전기는 사대부의 취미를 위한 귀족예술이 그 중심이 되고 있었으나 16세기 중엽이래 출현한 한글소설은 대부분 양반을 풍자하거나 사회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양반들의 생활상을 비판하고 신분제도를 풍자하는 내용의 판소리, 타령, 탈춤과 가면극 등은 민중의 불만과 당시 사회의 모순을 대담하게 풍자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을 신랄하게 토로하였다.

이러한 민중문학과 민중예술의 발전은 민중의식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민중의식의 성장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빈발하는 민란의 원인이 단순히 삼정의 문란 등 단편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회의 일반 민중들에 대한 근대적 사회 인식이 신장되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층민중들의 삶의 의지의 발현인 그들의 혁세적 종교 사상은 그 내부에 일상적 감성에 적합한 논리구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지니면서 기층을 반봉건 항쟁의 일선으로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지배질서를 부분적으로가 아닌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체제에 대한 변혁투쟁이 본격화되려면 기존의 지배 질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당시의 기층민중들은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역사적 전환기와 사회적 급변기에 정국의 혼란, 사회적 불안, 가치관의 붕괴, 지배종교의 쇠퇴, 기성 종교의 화석화 등등의 사회병리현상은 당시의 기층민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 이념과 정신적 안식처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신종교는 억압받는 민중들의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발로였으며 그들의 생애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의 종교운동<sup>23)</sup>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조선조의 유교가 갖는 모순과 한계성을 자체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양반계급 내부에서의 유교보완운동과 다른 하나는 유교적 가치와 유교적 사회체제로부터 소외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왔던 피지배계급이 주어진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열망을 체계화하려는 운동이었다.<sup>24)</sup>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발생하게 된 조선후기의 종교운동은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만민평등이라는 사상으로 지배층과 부딪히면서 변혁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미래에 대한 대망을

23) 황선명은 이를 종교상징을 축으로 한 문화론적인 시각에서의 규범문화의 페르다임을 대체하여 들어가는 감성공동체의 유연한 흐름, 즉 유동성이라는 언어로서의 운동이 가지는 상징적인 은유(metaphor)를 읽어 내려고 하기도 한다.(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92, 325-328쪽)

24) 황선명, 위의 책, 335-345쪽.

기약하는 종교 사상적 회귀를 추구하며 종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미래 대망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기대감을 충족 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조선후기의 혼란한 사회상과 기층민중의 새로운 이상을 이루려는 열망은 한국 신종교 출현의 배아로 작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동학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민중의 힘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실패는 민중들에게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또 다른 대망을 갈망하게 하는 이중적 구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의 종교정신이 봉기 혹은 혁명의 명분으로 변용되어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사회의 생민들에 대한 폭압의 요인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접어드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증산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제행의으로써 삶의 절망 앞에서 무기력하던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며, 증산(甌山)의 대순<sup>25)</sup>사상(大巡思想)<sup>26)</sup>은 이러한 사회인식과 그의 종교적 자기각성을 통해 성립되었다.

### Ⅲ. 대순사상의 형성 과정

조선후기의 종교, 문화적 상황은 사회구조의 제분야와 마찬가지로 궤도수정을 필요로 했으며 또한 기층의 민중들에게는 생의 혼란에서 인간에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한 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상체계(表象體系)와 신념체계(信念體系)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소박한 신앙적 전통으로 일관했던 우리 민족은 내우외환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현한 대순사상은 기층민중의 심의 속으로 서서히 다가갈 수 있었다.

증산으로부터 시원되는 대순사상은 정산(鼎山)에 의해 계승되고 우당(牛堂)에

25) 대순은 광구천하(匡救天下)의 상징성과 현시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大’는 종교행위의 객가 우주전체의 공간에까지 미친다는 상징성을 가지며, ‘巡’은 돌아다니면서 살펴본다는 현시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은 우주 삼계의 곳곳을 두루 순회하여 정황을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장병길, 대순신앙의 구조,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1983, 60-61쪽. 참조)

26) 대순사상(大巡思想)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일련의 종교사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증산 강일순(甌山 姜一淳, 1871-1909)을 종교적 연원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으로 이어지는 종교의 맥을 형성하고, 도통진경의 이상세계 실현을 목적으로 구체화시킨다.(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106쪽)

의해 현대사회에 현창된다. 여기서는 대순사상이 증산과 정산, 우당으로 이어져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핵심적 종교사상과 활동 등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 1. 교조(敎祖) 증산(甌山)

대순사상의 연원적 시원이며 교조인 증산에 대하여는 학문적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며 유관 학자 및 인사들은 이미 주지의 내용이다. 그의 종교사상과 관련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인 천지공사는 그의 종교적 사유체계와 세계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하고도 중한 의미체계를 담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여기서는 증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서술만을 하고자 한다.

증산(甌山 姜一淳, 1871-1909)이 탄강한 때는 1871년 신미년 음력 9월 19일이고, 고종 8년째 되던 해이며<sup>28)</sup> 탄강지는 현재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새터에 해당된다.<sup>29)</sup> 역사적 상황으로서는 서학(西學)이 전래되고 외세의 물결이 밀려와 조선의 근대화를 부추기던 시대였고, 동학의 창시자인 최수운이 활동하다가 흑세 무민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지 7년째 되던 해이다. 증산의 성은 강(姜)씨이고 존휘는 일순(一淳)이며 자함은 사옥(士玉)이다.<sup>30)</sup>

증산은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으로부터 광구천하의 뜻을 품은 이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고 인심과 속정을 살피기 위해 전국을 주유(周遊)하게 된다.<sup>31)</sup> 3년의 주유 끝에 고향 객망리에 돌아온 증산은 이후에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공부하였는데, 이 때의 공부는 주유의 결과에 대한 광구천하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타적 종교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천하를 광구하기 위한 공부를 통해<sup>32)</sup> 증산은 혼란한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력(神力)과 대권(大權)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그의 생애에는 많은 기행이적들이 행하여졌다.

27) 이에 대하여는 윤재근의 <대순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을 참조하기 바람.

28) 객망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六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시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甌山)이시니라. 때는 신미(辛未)년 九월 十九일인 즉 이조 고종(李朝高宗) 八년이며 단기로서는 四千二百四년 이고 서기로는 一千八百七十一年 十一月 一일이다. 《典經》, 행록 1장 5절.

29) 《典經》, 행록 1장 6절.

30) 《典經》, 행록 1장 5절 참조.

31) 《典經》, 행록 2장 1절.

32) 《典經》, 행록 2장 10절 참조.

증산이 행했던 이적(異蹟)이나 신력(神力)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권능<sup>33)</sup>의 상징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sup>34)</sup> 살아있는 자의 수명을 연장<sup>35)</sup>시켜준다는 등으로 표상된다. 이와 같은 기록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증산이 신앙적 최고신인 상제임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의 기행 이적을 강조함으로써 증산이 행한 종교행동이나 그가 담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사유체계가 희석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행이적의 자체 현상보다는 그것의 배면에 깔려있는 상징이나 의미체계를 찾아내는데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36)</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증산은 천지신명의 하소연으로 인신(人身)으로 강림하였으며, 또한 혼란한 천지를 바로 잡기 위한 그의 종교행동의 당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천지의 자연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상도를 잃었고 그 결과 천하가 진멸지경에 빠졌으므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종교적 인물이 바로 ‘구천상제(九天上帝)’인 증산 자신이라는 자기확신인 셈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와 작업의 총체를 일러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7)</sup> 즉 신축년(1901)부터 시작된 천지공사는 증산이 행한 일련의 종교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천·지·인 삼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그 객체지로 삼는다. 이와 같은 천지공사의 주재자는 스스로의 종교적 각성을 통하여<sup>38)</sup>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지닌 개벽장으로서의 최고신격을 인식한 증산 자신이며, 천지공사는 남의 것을 계승한 것이 아니며 오직 증산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종교적 독자성과<sup>39)</sup> 종교사상적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중요한 단초는 천지공사와 관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기본구조는 그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한다.<sup>40)</sup>

증산은 인류가 처한 현실세계와 그가 구상하는 종교적 이상세계를 대비하여

33) 《典經》, 공사 1장 4절.

34) 《典經》 제생 9절.

35) 《典經》, 행록 2장 13절.

36) 《典經》, 공사 1장 9절.

37) 《典經》, 공사 1장 1절.

38) 《典經》, 예시 1절 참조.

39) 《典經》, 공사 1장 2절 참조.

각각 보통명사로서의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대비한다. 즉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세계는 진멸지경에 처한 참혹한 세계이며 천지공사를 통하여 건설되는 후천선경은 종교적 이상세계가 된다. 이것은 증산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에 의하면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세계는 상극의 지배논리에 의해서 인간사물이 모두 포원(抱冤)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개벽(開闢)이라고 하는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상생(相生)의 법리가 운행하는 후천의 선경(仙境)세계를 개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교적 자기각성을 한 증산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 과정의 핵심개념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그에 의하면 천지공사에 의해서 결과되는 후천선경은 안정과 평등이 실현되는 인존(人尊)시대이며 경제정의가 구현되는 풍요의 세계이고 사회문화적 갈등이 해소되는 통일의 시대이다. 따라서 후천선경에서는 인간의 본향성과 존엄성이 실현되는 인존시대가 되는 것이다.<sup>42)</sup>

또한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는 선천의 참혹한 상태를 뜯어고치기 위한 구제의 역사이며 인류에게 종교적 이상세계를 지상에 실현시켜주는 삼계 개벽의 공사이자. 이것은 대순진리회가 지향하는 바가 가장 간결하게 표현된 종지와 목적에서도 귀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sup>43)</sup> 이러한 증산의 종교적 구도가 가지는 배면에는, 그의 종교사상이 민중적이고 민족적이며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정서에 기반한다고 할 때, 당시대의 상황에서는 점수(漸修)적 사유체계보다는 돈오(頓悟)적 반전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반목과 쟁투가 없는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증산이 강세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하여 광구천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인류에게 무한한 낙원의 세계를 베풀어주는 것은 곧 증산이 당대를 살면서 행한 대역사(大役事)에 해당된다고 하겠다.<sup>44)</sup>

40) 윤재근, 앞의 논문, 2003, 197-200쪽 참조.

41)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제3장, 2001, 참조.

42) 이에 첨언하면, 증산의 사유체계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하며 그의 종교적 행위의 표상인 천지공사 또한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줄고(2001)인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종교연구 제23집, 한국종교학회)와 줄고(2003), 대순사상의 인간이해(대순사상논총 제16집, 대순사상학술원), 줄고(1999), 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대순사상논총 제7집, 대순사상학술원) 등이 참고가 된다.

43) 《典經》, 교운 2장 32절 참조.

44) 최동희, 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경기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31-87쪽 참조.

## 2. 도주(道主) 정산(鼎山)

증산을 구천상제라는 신앙의 대상으로 확립한 것은 정산(趙鼎山, 1895~1958)<sup>45)</sup>에 이르러서이다. 증산의 화천 이후 남겨진 신앙적 과제를 놓고 그 신앙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상제 강세(降世)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산은 바로 증산의 역사에 이어서 그 종통을 계승함으로써 대순사상의 골격을 세운 인물이다.

정산은 을미년인 1895년에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탄강하였으며 증산이 그의 본격적 종교 활동기인 천지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사회적으로는 갑오경장과 을미사변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때이기도 하다. 정산의 성은 조(趙)씨이고 존휘는 철제(哲濟)이며 자함은 정보(定普)이며 정산(鼎山)은 호이다.<sup>46)</sup>

부조(父祖)전래(傳來)의 배일사상이 바탕이 되어 자라난 정산은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 가던 시대에 구국제세(救國濟世)의 뜻을 품고 유력하게 되었으니 곧 증산을 상대로 한 종교체험의 배경이 된다. 또한 정산은 한일합방이 결정단계에 있음을 개탄하고는 부친, 숙부 등과 같이 만주 봉천(奉天)<sup>47)</sup>지방으로 유력하게 되고 이 때가 그의 나이 15세 되던 해인 기유년(己酉年, 1909) 음력 4월 28일이였다.<sup>48)</sup> 정산의 입산공부는 총 9년(1909~1917)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9년째 되던 해

45) 여흥 민씨(驪興閔氏)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불빛이 밝게 자기에게 비치더니 그 후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으니라. 이 아기가 장차 상제의 공사를 뒤이을 도주이시니 때는 을미년 십 이월 초나흘(十二月四日)이고 성은 조(趙)씨이요, 존휘는 철제(哲濟)이요, 자함은 정보(定普)이시고 존호는 정산(鼎山)이시며 탄강한 곳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慶南咸安郡漆西面會文里)이도다. 이곳은 대구(大邱)에서 영산·창령·남지에 이르러 천계산·안국산·여항산·삼죽산·부봉산으로 연맥되고 도덕골(道德谷)을 옆에 끼고 있는 문동산·자고산의 아래로 구미산을 안대하고 있는 마을이로다. 《典經》, 교운 2장 1절.

46) 《典經》, 교운 2장 1절 참조.

47) 현재 중국의 지명은 심양(瀋陽)이다. 중국 요령성의 수도이고 북경과 상해, 천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당나라때 심주치(瀋州治)라고 불렸으며, 명나라 때 심양중위(瀋陽中衛)라고 하였다. 청의 시조 누루하치가 이곳을 도읍으로 설치, 성경(盛京)으로 이름붙였으며, 청나라 순치 14년(1657년)에 봉천부(奉天付)라고 이름을 지었다. 공서 33년(1907)에 봉천성(奉天省)이라고 하여 봉천부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1914년에 심양현으로 이름을 달았다가 1934년에 심양시(深陽市)로 이름을 확정된 것이 현재에 이른다.

48) “도주께서 기유년(十五歲時) 4월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 땅인 만주에 가셨도다.” 《典經》, 교운 2장 4절.

인 정사년(丁巳年, 1917) 음력 2월 10일에 결국 증산으로부터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게 된다.<sup>49)</sup>

한편, 고국을 떠난 지<sup>50)</sup> 9년만에 배일(排日)구국(救國)과 구제창생(救濟蒼生)의 대지(大志)를 품고 귀국한 정산은 증산의 계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편력 수도하면서 종교활동의 기반을 닦았고,<sup>51)</sup> 또 증산이 남긴 봉서를 물려받기도 하였다.<sup>52)</sup> 당시의 증산교단은 증산의 화친 후 친자(親子)종도(從徒)<sup>53)</sup>들의 교단창립으로 인해 수많은 교파가 난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저마다 종통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교세확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산의 종교체험은 여타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볼 때 견제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정산의 종교활동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정산은 증산의 종통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종단창설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정산의 종교적 사명은 곧 증산의 유지(遺志)를 파악하여 그 사상을 세상에 천명(闡明)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증산이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 선경이 이루어지는 도수(度數)를 짜 놓았다면, 정산은 그 도수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적 법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정산은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가노라”<sup>54)</sup>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종단의 창설과 아울러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종교사상의 부분에서는 그 핵심이 되는 요지를 ‘종지(宗旨)’<sup>55)</sup>로 표현하였으니, 이것은 곧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대체(大體)를 요약하여 표명한 것이다. 한편 신앙생활의 요체를 ‘신조(信條)’로 정하고 이를 다시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sup>56)</sup>로 나누어 진실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하나의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sup>57)</sup>을

49) 《典經》, 교운 2장 6절.

50) 《典經》, 교운 2장 4절.

51) 《典經》, 교운 2장 7절-8절 참조.

52) 《典經》, 교운 2장 13절.

53) 대표적으로 김형렬(太雲 金亨烈, 1862~1931)의 미륵불교, 박공우(仁菴 朴公又 ?~1940)의 태을교, 차경석(月谷 車京石, 1880~1954)교단, 안내성(敬萬 安乃成, 1867~1949)의 증산대도교 등이 있다.

54) 《典經》, 교운 2장 48절.

55)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56)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성(誠)·경(敬)·신(信)

57) 목적(目的)

밝힘으로써 교리의 체계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행해졌던 중요한 활동으로는 안면도와 원산도의 간석지 개척을 들 수 있으며, 이후 종단의 역사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다양한 현실적 대응을 하게 된다.

정산이 확립한 종지(宗旨)는 증산의 천지공사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그 사상의 대체를 집약하고 있다. 증산은 당대의 종교사상가이자 한 종교의 개창자임에 틀림없으며 그가 행한 천지공사의 내용은 마땅히 강조되어도 과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것을 정산은 종지로 표현하여 그 대강으로 삼았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내용은 바로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 이상세계의 기본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세계의 존재양상을 음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해할 때 그 범주를 구성하는 개별사물들이 서로의 덕을 합하여 이루어 내는 이상적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둘째는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사상이다. 신은 음, 인간은 양이므로 음양합덕에 기초하면 신과 인간도 서로 합본(合本), 합덕(合德)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곧 신인조화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신인조화의 사상은 인존의 실현과 새로운 강륜의 확립이라는 사상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종지에 있어서 종교적 실천의 대강령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은 증산의 대순(大巡)한 진리가 선천의 역사를 진단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면, 그 사상의 요체는 바로 해원상생의 종지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천지공사의 본령은 원(冤)으로 짐철된 선천의 진멸지경의 역사를 해원을 위주로 하여 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원은 나아가 상생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함에 따라 그 진정한 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종지의 마지막으로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사상이다. 도통진경이라고 했을 때 도(道)는 바로 증산의 사상을 표상하는 대표적 개념이다. 그리고 도통진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증산의 대순한 진리를 만천하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증산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의 정수를 가려 뽑아서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게 되면 곧 만인이 화평하게 어우러져 사는 이상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는

---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



것이다. 이것은 또한 곧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주된 방향이기도 하다.

한편, 1957년(丁酉年) 11월에 행해진 각종의 수도방법과 의식에 관한 설법은 정산의 종교활동의 백미(白眉)에 해당한다. 그것은 1909년 증산의 화천과 더불어 분화된 신앙체계들이 그 목적에 있어서 ‘도통’이라고 하는 경지를 추구하였으므로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수행방법의 문제는 귀하고도 중한 것이었다. 여기에 정산이 제정한 시학(侍學)·시법(侍法)과 같은 공부<sup>58)</sup>는 그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하겠다.

수도 공부의 모든 법제를 다 갖춘 다음 해인 1958년(戊戌年)년 2월 하순경에는 최고 간부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우당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면서 도(道)의 체계와 임원을 개편하였으며, 백일도수를 다 마친 후 3월6일에 화천한다.<sup>59)</sup>

### 3. 도전(都典) 우당(牛堂)

정산의 화천은 종단활동의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것은 종통 전수에 따른 새 체계와 종단의 운영에 대한 임원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도주(道主)’의 위격은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어서 그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의 법제(法制)를 갖추었다는 데 있다면, 이후의 종통계승자는 기존의 법제를 체계화하고 신앙의 고유성을 확보하며 대순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종단형태에서 그 기초가 되었던 교리체계를 가지고 엄연한 교학사상의 틀을 갖추며, 나아가 그 사상적인 연역작업을 통해 대순사상을 현창(顯彰)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의식으로 정산의 종통을 계승한 이는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이다.

우당은 서기 1917년인 정사년(丁巳年) 음력 11월 30일에 충북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방곡리(方谷里)에서 부친 영선(永善)과 모친 김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으나 종가의 백부 유선(有善)에게로 출계(出系)하였다. 유년 시에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수안보 보통학교를 졸업하여 교사활동을 하던 27세(1943)에 강제징집으로 일본에 건너가 청삼(靑森) 해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우당은 해방과 더불어 본국으로 귀국하고 31세 되던 해인 1947년에 정산(鼎山)의 무극대도(無極大道)에 입도 하였다. 입도 초부터 남달리 포교에 힘쓰던 우당은 1954년 충북지방의 포감이 되었고, 1957년(丁酉年) 음력 12월 26일에 정산으로부터 우당(牛堂)이라는 호를 받았다.<sup>60)</sup>

58) 《典經》, 교운 2장 62절.

59) 《典經》, 교운 2장 66절 참조.

우당은 종단의 임원으로서 정산의 종교활동을 보필했으며 정산의 신임을 쌓아왔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58년(戊戌年) 2월 하순경에 도(道)의 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총 도전(都典)으로 임명<sup>61)</sup>되었으니, 곧 종통계승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가 선포된 것이다.<sup>62)</sup>

도전으로 임명된 우당은 마침내 정산의 화친과 함께 그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고 정산의 50년간의 종교활동<sup>63)</sup>과 그의 종교사상을 유지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증산으로부터 비롯된 대순사상은 정산에 의하여 그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우당으로 계승되었으며, 이어서 새로운 종단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대순사상은 증산과 정산을 거쳐 우당에 이르러 대순사상을 현대사회에 확충하게 된다. 또한 우당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종단의 체제와 신행 의식을 정비하여 사회적 실천력을 진작하고 증산과 정산의 종교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정산으로부터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한 우당은 새로운 종단의 창설을 위한 준비에 전력하면서 1968년(戊申年)에 경기도 안양 수리사(修理寺)에서 49일간의 공부를 하였다.<sup>64)</sup> 그리하여 이듬해인 1969년(己酉年) 4월에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고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하였으니 이로써 새로운 종단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정산에 의해 도전(道典)으로 임명되어 종통을 계승한 우당은 대순진리회 중앙본부 도장을 서울 중곡동(中谷洞)에 창건함으로써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진 교의체계를 가지고 엄연한 교학사상의 틀을 완성하였다. 또한 그는 증산과 정산의 종교사상을 연역적으로 완성하여 대순사상을 현대사회에 현창(顯彰)시킨 주역이다. 우당은 한편 건전하고 참신한 종교활동과 함께 연차적 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 등<sup>65)</sup>을 계획 추진하여 66) 대순사상의 사회적 실천

60) 윤재근, 앞의 논문 2001, 47쪽; 대순진리회 교무부, 《우당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2003, 16-19쪽; 태극도편집위원회, 《태극진경》, 부산, 태극도출판부, 1989, 8-116쪽 참조.

61) 《典經》, 교운 2장 64절.

62)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도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부록 1 대순종단의 연혁' 참조.

63)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밖에 시립케 한 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 《典經》, 교운 2장 66절.

64) 대순종학교재연구회, 위의 책 참조.

65) 구호자선사업으로서의 불우이웃 돕기·불우아동돕기·신체장애자돕기·이재민돕기·양로원 고아원 돕기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새마을 사업·자연보호캠페인·교통질서 및

을 실현하였으며, 대순사상의 윤리성을 확보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활발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현대적인 종단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산의 설법을 종교현장에 적용시켜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수행 체계<sup>67)</sup>를 완성하고 증산과 정산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우당은 증산이 설법한 무한한 대순의 진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인보상조(隣保相助)의 인류평화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화평사상으로서의 대순사상이 가지는 윤리성을 대순지침<sup>68)</sup>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먼저 우당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먼저 국민운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정산의 구국제민의 창도 이념을 준행할 것과 상생윤리의 실천 실행을 강조한다. 우당은 대순진리회가 민족종교임을 밝힘으로써 민족주체성 계도에 앞장설 것과 정산의 창도정신인 구국제민의 정신을 함양 계승할 것과 아울러 공사(公私)의 분(分)과 상하(上下)의 의(義)를 바로 지켜서 스스로를 반성하여 상극(相克)을 막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해원상생의 실천적 윤리를 강조한다.

그는 척을 맺게 되는 경위에 대하여,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9)</sup>

이러한 척(慝)을 푸는 행위를 해원(解冤)의 기초로 규정짓고 있는 바<sup>70)</sup>, 해원

---

거리정화운동·지역개발사업·방범활동·원호성금·방위성금·논촌일손돕기·미아보호운동·노인잔치·경로사상선양운동·청소년육성회돕기 등이 있다. 교육사업으로서는 매년 종단의 세출과목예산을 절감하여 교육기금을 조성, 1984년에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한 뒤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1992)를 비롯하여 대진고등학교(1985)·대진여자고등학교(1989)·분당대진고등학교(1994)·일산대진고등학교(1994)·수서전자공예고등학교(1996)·부산대전자정보고등학교(1996) 등을 개교하였다. (대순진리회교무부 《大巡會報》,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6쪽 참조)

66)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1969, 13쪽 참조.

67) 대순진리회교무부, 《우당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2003, 140-154쪽 참조.

68) 대순지침은 1980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 도진(牛堂 朴漢慶, 1917-1996)께서 도인들에게 내리신 훈시를 중앙총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무부가 그 요의(要義)를 정리하여 대순지침(大巡指針)으로 삼은 것이다.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3쪽 참조.)

6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7쪽.

7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7쪽.

(解冤)은 그 행위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인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호간에 맺힌 적이 풀려야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상생윤리의 생활화를 통하여 정산의 창도이념인 보국안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사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이 될 것과 사회도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sup>71)</sup> 또한 수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며,<sup>72)</sup> 대순사상에 바탕하여 사회성원들과의 상호 유대 및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sup>73)</sup>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국법을 준수하고 윤리도덕을 준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를 강조한 것이니, 이는 결국 국리민복에의 기여와 함께 화평사상으로서의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종단의 규모는 1986년 여주수도장을 창건하면서 급격히 확대되어 갔으며 1987년에는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었다. 1989년에는 제주 수련도장이 개관되었고, 1992년에는 포천 수도장이 완공되었으며, 1993년에는 본부도장이 중국동에서 여주로 이전되었다. 1995년에는 속초 금강산에 수련도장이 건축됨으로써 전국에 다섯 군데의 도장이 조성되게 되었고<sup>74)</sup> 도세현황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200만에 달하는 신자를 배출하였으며(1997. 12. 31 현재 1,953,483명), 시설물로는 회관 91개소, 회실 154개소, 포덕소 1,115개소(1998. 12. 31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sup>75)</sup> 이러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종단의 홍보와 그 교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인쇄물과 서적을 발간하기도 하였으며,<sup>76)</sup> 종교적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중

71) 위의 책, 29쪽.

72) 위의 책, 29쪽.

73) 위의 책, 31쪽.

74)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도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부록 1 대순종단의 연혁> 참조.

75) 대순진리회교무부, 《종단 대순진리회》, 화보집,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99 참조.

76) 【경전 관련】: 《典經》, 《전경색인집》

【교직자용 간행물】: 《포덕교화기본원리(布德教化基本原理)》, 《도헌(道憲)》, 《대순지침(大巡指針)》

【정기 간행물】: 《대순회보(大巡會報)》

【종단 홍보용 간행물】: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 《대순성적도해요람(大巡聖蹟圖解要覽)》, 《종단 대순진리회 화보집(畫報集)》

【연구 저서】: 《대순종교사상》, 《증산(甞山)의 생애와 사상》, 《대순진리 입문》, 《대순진리강화》 I, 《대순진리강화》 II, 《천지공사론(天地公事論)》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도<sup>77)</sup>를 강조하여 종단의 내적, 외적 성장을 주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당은 1969년 이후의 종교활동에서 새로운 종단을 형성 발전시킴에 따라 규모 있는 현대 종교적 체제를 갖추었으며, 오늘날 대순사상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 IV. 결론

종교는 그 발생과정에 있어서 민족적 혹은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sup>78)</sup> 그러나 그것은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인간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와 함께 그 사상적 전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종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경우 그 형성배경이 조선조 말엽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 민족적 특수성을 배제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의미있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밟고 있는 이 시

【논문집】: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논집(大巡論集)》

77) 수도는 종단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례적 방법과 도장에서의 지정된 공부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修道)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 없이 생각(生覺)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 수도(修道)는 공부(工夫)와 수련(修鍊)과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區分)한다.

공부(工夫) ... 일정(一定)한 장소(場所)에서 지정(指定)된 방법(方法)으로 지정(指定)된 시간(時間)에 주문(呪文)을 송독(誦讀)한다.

수련(修鍊) ...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의 지정(指定)이 없이 기도주(祈禱呪) 혹(或)은 태을주(太乙呪)를 송독(誦讀)한다.

평일기도(平日祈禱) ... 매일(每日) 축(丑) 미시(未時)에 자택(自宅)에서 행한다. 단(但) 외출시(外出時)는 귀가(歸家) 후(後) 보충(補充)한다.

주일기도(主日祈禱) ... 갑(甲)·기일(己日)·자(子) 오(午) 묘(卯) 유시(酉時)에 지정(指定) 장소(場所) 혹(或)은 자택(自宅)에서 행한다.

이상의 수도내용은 종단에 소속된 신앙인들의 주된 신앙활동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78) 강돈구는 종교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틀로 민족의 정체성과 통합성 그리고 당대인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한국근대종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1992, 25-44쪽 참조).

점에서는, 전 인류를 향한 보편성의 문제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대순사상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 종교지도자들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문의 서술을 통하여 볼 때 정산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있어 그의 종교적 행적에 관한 기록은 미미한 실정이며 깊이 있는 연구 또한 부재하다. 무라야마의 ‘조선의 유사종교’에 의하면 그 시기에 이미 증산계열의 종단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도의 숫자 또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가히 조선총독부가 긴장감을 가질 만 하였다.<sup>79)</sup> 그러므로 정산에 대하여는 그의 종교사상과 종교적 업적에 대한 보다 깊고도 넓은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필요한 경우 북한의 학자들과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와 한국전쟁 사이의 종교적 사료는 현재 우리에게 부재하다시피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당의 종교적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현재 대순진리회의 전개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2003년 12월에 대순진리회 교무부에서 출간한 ‘우당의 생애와 사상’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서적이다. 그러나 이것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대순진리회라는 거대 종단의 실체의 핵심에는 우당이라는 종교가가 자리 잡고 있다. 현대의 사회에 있어 종교에 대한 성장과 발전의 문법을 제시하고 한국 신종교 지도자의 모델로서 역할 한 우당의 사상과 종교적 위업은 반드시 연구되고 확산되어야 할 당대의 과제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작업이 현재의 종단의 과제상황에 있어서는 유일한 공통분모이며 화합의 열쇠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이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국내외의 유관 학자들에 대한 훌륭한 연구의 성과를 기대한다.

79) 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제8장, 조선총독부, 476-759쪽 참조.

《 參考文獻 》

《목민심서》

《순조실록》

- 대순진리회교무부, 《典經》,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 대순진리회교무부, 《종단대순진리회》, 서울, 화보집, 1999.
- 태극도 편찬위원회, 《진경》, 부산, 태극도출판부, 1989.
- 러시아 대장성 편, 《한국지》, 동경, 일본농상무성, 1905.
- 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조선총독부, 경성, 1935; 영인본, 학문각, 1971.
- 강돈구,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1992.
- 김용변,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서울, 일조각, 서울, 1970.
- 김용욱, 《독기학설》, 서울, 통나무, 2004.
- 대순중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도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대순진리회 교무부, 《우당의 생애와 사상》, 서울, 2003.
-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上)》, 서울, 태광출판사, 1994.
- 망원한국사 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서울, 들배게, 1989
- 윤남한, 《朝鮮時代陽明學研究》, 서울, 집문당, 1982
- 장병길,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3.
- 최동희 · 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경기도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 황선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92.
- 김창수, <東學運動과 民族意識의 成長>, 《人文科學研究 I》, 誠信女大, 人文科學研究所, 1981.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 <인존사상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대순사상논총 제7집》, 경기도포천, 대순사상 학술원, 1999.
- ,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83.
- 한우근, <동학창도의 시대적 배경>,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7.
- , <동학의 성격과 동학교도의 운동>, 《한국사1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